



LPG업계 주요 이슈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 지난해 LPG · 도시가스사용세대 양극화 지속
- ▶ LPG소형탱크 1만2,671기 설치
- ▶ 경유가격 초강세...LPG엔진개조 '반사이익'
- ▶ 고유가 극복 대책에 LPG 포함시켜야

지난해 LPG · 도시가스사용세대 양극화 지속

전년대비 LPG사용세대 1.8% ↓, 도시가스는 4.7% ↑

2006년 반짝 상승했던 LPG사용세대(주택+영업)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도시가스사용세대(주택+업무 · 산업)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총 세대수는 2021만8711세대로 이 가운데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는 98.9%인 2001만21세대였다.

가스별로 살펴보면 LPG는 732만9221세대, 도시가스는 1268만800세대가 사용하고 있었다. LPG사용세대는 주택과 영업용을 포함한 것이며 도시가스사용세대는 주택과 산업용, 업무용을 포함한 수치이다.

LPG사용세대는 2005년 707만6523세대에서 2006년 746만7564세대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732만9221세대로 1.8% 감소해 2005년에 이어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시가스사용세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1211만6369세대에서 지난해 1268만800세대로 4.7% 늘어났다.

1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하면 LPG사용세대는 13.7% 감소했으나 도시가스사용세대는 121%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 가스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LPG사용세대는 경기도가 118만413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75만8560세대, 경북 68만144세대, 전남 59만5988세대, 서울 59만820세대 순이다. 도시가스는 서울 385만3007세대, 경기 315만1848세대, 인천 84만5918세대, 부산 83만189세대, 대구 72만3046세대 순이다.

[가스신문 6-13]



LPG소형탱크 1만2,671기 설치

0.5톤)2톤초과 3톤미만)1톤 이하

지난해말까지 설치된 3톤미만의 소형저장탱크가 1만2,671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LPG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에는 지난해 실적을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소형저장탱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1만 2,671기의 소형저장탱크가 특정사용시설 또는 집단공급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별로는 0.5톤 이하가 3,840기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톤 초과 3톤 미만인 3,537기, 0.5톤 초과 1톤 이하 2,002기, 1톤 초과 1.6톤 이하 1,793기, 1.6톤 초과 2톤 이하 1,464기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5기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628기, 경북지역이 1,280기, 경남 1,268기 등이었으며 서울은 24기로 가장 적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0.5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0.5톤 이하의 시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심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안전거리 등이 확보되지 않는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설치 공간이 많고 산업체, 음식점 등도 많이 분포돼 도심보다는 지방이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6-12]

경유가격 초강세...LPG엔진개조 '반사이익'

올 초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듯

경유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유차의 LPG엔진개조가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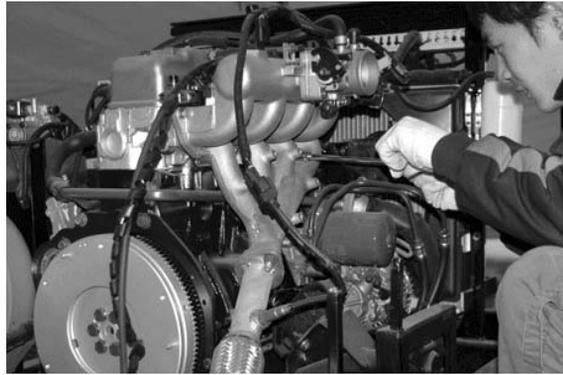
경유자동차는 주로 RV차량을 비롯해 트럭, 화물 운송업자, 영세 상인들이 연료비를 절약하고자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경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서 30일까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76.62원을 기록했으며 경유가격은 리터당 1876.92원으로 휘발유가격을 앞질렀다.

특히 경유자동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들이 많아 연료가격에 상당히 민감한데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LPG엔진개조업체 한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급등하면서 LPG엔진개조의 경우 최근 목표 수치보다 20~30%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올해는 LPG엔진개조 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경유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엔진개조가 올 초 진행되던 속도에 비해 10% 정도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LPG엔진개조의 증가세를 느끼는 개조업체의 체감온도는 차이가 있지만 경유가격이 올라 LPG엔진개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LPG엔진개조가 올 초에 비해 활성화되자 자동차 정비공장의 일손도 바빠지고 있다. 부천시 삼정동 K 자동차공업사는 예전에 운전자들이 LPG엔진개조를 하려면 이틀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최근에는 열흘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LPG엔진개조를 실시하도록 권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들 운전자들이 공업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경유가격의 상승으로 LPG엔진개조업체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LPG엔진으로 개조하면서 연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수송용 연료 간 가격비율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LPG엔진개조가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연료비의 변화 등 외부의 변수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도 생긴다”고 말했다.

[가스신문 6-4]

고유가 극복 대책에 LPG 포함시켜야

LPG공업협, 개별소비세 폐지 등 지경부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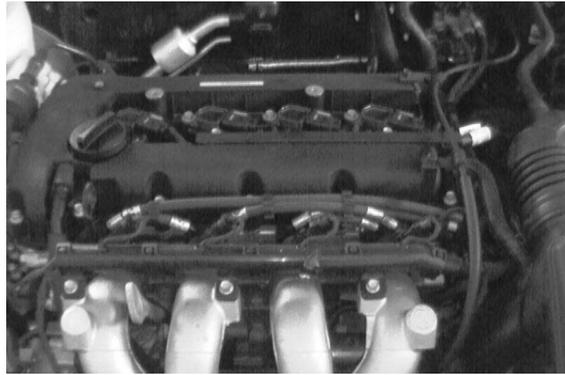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정부에서 최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만 포함돼 있고,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LPG연료에 대한 지원은 배제돼 있다는 건의문을 최근 지식경제부



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서 공업협회는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등 저소득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이므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로판은 겨울철 동안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금액은 kg당 6원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쟁연료인 전기와 도시가스는 상반기 동안 동결됐으며 이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프로판은 배제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프로판은 저소득층 연료이므로 이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탄연료에 대해서는 택시의 경우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됐으나 LPG가격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화물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연료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0년에 장애인 LPG연료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인데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든지 장애인 LPG차량의 연료가 면세화 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가스신문 6-16]